

함께 한 창작의 길... 함께 갈 문학의 꿈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

최근 3년간 신춘문예·문학상 등 8명
11일 카페 '비체'서 신년콘서트
시상 및 노명숙·방승희 작가 특강

문학동인은 창작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임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동인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 동인 활동은 동인회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 외에도 문학을 매개로 소통과 교류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통과 교류를 넘어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을 북돋우고 함께 문학의 발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5년 결성돼 올해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소장 이성자·창작연구소) 회원들이 그들이다.

창작연구소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 콘서트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광산구 진곡동 카페 비체에서 사무식을 겸해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새해 창작활동 독려와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창작연구소 회원들은 서로를 '도반'(道伴)이라고 지칭한다. 더 나은 작품 창작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배우며 '수련'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창작연구소에 따르면 이곳을 매개로 지금까지 신춘문예와 각종 문학상 수상 등 모두 57명의 등단자가 나왔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에는 유백순, 정소운, 주미선, 김숙, 박선영, 주미선, 고은남, 이연숙 등 모두 8명이 신춘문예 등단을 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했다.

서구 광천동에 자리한 창작연구소는 등단, 미등단을 가리지 않고 문학을 애호하고 창작을 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특히 동화나 동시와 같은 아동문학을 하는 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교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창작연구소는 매년 콘서트와 사무식을 매개로 한 해를 여는데 지난 2007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 '찾아가는 동시낭독'으로 진행된 사무식은 2018년 '비움 박물관'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 회원들. 지난 2020년 사무식 장면.

으로 자리를 옮겨 펼쳐졌다. 지난 2021년, 2022년 코로나로 중단됐다.

이번 자리에서는 그동안 연구소에서 공부한 이들이 함께 모여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모두 2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신년 인사와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시상은 뿌리상, 열매상, 새싹상, 특별상, 우정상이 수여된다.

광주예술기부금 매칭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큰 도움을 준 이에게 주는 뿌리상은 김명희 씨에게 수여된다. 작가들이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를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열매상은 지난해 책을 발간했거나 문학상을 수상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이연숙, 박상희, 조연화, 정영숙, 노명숙, 김숙, 황숙자, 조오복, 백정애, 박선영, 방승희, 염연화, 박형숙 씨에게 받는다.

짧은 기간에 좋은 결과물을 얻은 이에게 주는 새싹상은 주미선 씨가 수상의 주인공이다. 주 작가는 2020년

동서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자신의 월별 활동사항을 기록하며 동료들과 나눈 이에게 주는 특별상은 방승희, 김명희, 양정숙, 이연숙, 정소운, 조연화, 최경선 씨가 받은 연구소 살림살이와 회원친목, 카페관리 등에 힘쓴 이에게 주어지는 우정상은 안수자, 장유심 씨 등에게 수여된다.

2부에서는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먼저 노명숙 작가가 '독서문화조성을 위한 아동문학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자리에서 노 작가는 학교나 지역 도서관 등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문학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이어 방승희 작가는 '동화시그림책의 탄생과 배경'을 주제로 책 출간과 관련 자신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방 작가는 지난해 '영산강 이야기'를 출간한 바 있다.

한편 이성자 소장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깊고 따뜻한 문학 발을 손잡고 즐겁게 걸어가기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한말 서양 의사 로제타의 삶 무대에

ACC 연극 '로제타' 13~14일 극장2...의료봉사 등 조명



단원들의 '로제타' 연극 연습 장면.

(ACC 제공)

구한말 근대 의료와 교육에 이바지했던 서양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로제타(1865~1951)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회복과 차별에 맞서 여성 교육과 의료 봉사에 생애를 바쳤다. 이번 작품은 '다름'에 대한 편견에 맞선 여성을 주인공으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13일(오후 7시 30분), 14일(오후 3시) 연극 '로제타'를 극장2에서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2022 ACC 국제공동창작 공연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미국

의 리빙 시어터를 비롯해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으로 광주와도 인연이 있는 극공간소 마방진과 옐로밤이 공동제작자로 참여했다.

공연은 실제 일기장을 토대로 로제타의 '순간들'을 구현했다. 모든 순간은 로제타의 시점과 제3자의 시점으로 펼쳐진다. 장면에 대한 인식과 싸움 외 여성과 사회, 일제 강점기 정치와 종교 등의 문제도 다뤄진다.

공연은 리빙 시어터의 토마스 워커를 비롯한 3명의 배우와 한국 극단 마방진 배우 등 총 8명이 로제타 역을 연기한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 13세(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입장료 전석 무료,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팔순 시인의 인생 4계 '겨울'

화순출신 손형섭 시인, 네번째 시집 '겨울 나그네' 펴내

시인마다 시를 쓰는 이유가 다르다. 어떤 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지나온 삶을 반추하기 위해 아니면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창작에 대한 열망 때문에 쓴다. 어떤 경우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소중하다.

화순출신 손형섭 시인은 "대자연의 이야기와 함께 나 자신을 위로 받기 위해 시를 쓴다"고 말한다. "대자연의 이야기"와 "위로"라는 어휘가 환기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시인이 이번에 펴낸 네번째 시집 '겨울 나그네'(문학

예술사)는 '눈 내리는 밤', '겨울 강가에서', '겨울 산', '겨울 들녘' 등 다수의 작품이 '겨울'을 소재로 한 시들이다.

시인은 '겨울'을 인간의 삶과 연관해 풀어낸다. 사계절 가운데 겨울은 마지막 계절이자 가장 원초적인 시간이다. 팔순이 넘은 시인이 맞는 겨울은 인생의 황혼에 다름아니다.

"엄동설한/ 모진 추위에도/ 축복의 서설은 내려/ 그 눈 위로 여든 한 개의/ 내 발자국이 보이네// 어릴 적 찬란하던/ 봄날의 꿈도// 무뎠던 염전의/ 여름날 고녘도// 값진 이롭과/ 잃음의 가을날들// 이 모두가 흰 눈



길 위로/ 아득히 보이네"

위 시는 '겨울 나그네 1'의 전문이다. 시집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다. 봄날의 꿈, 여름날의 고녘, 이롭과 잃음의 가을, 그리고 맞닥뜨린 겨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난하고 아득한 모든 시간들이 결국 '모두가 흰 눈길 위로' 보이는 것은 인생의 겨울이라는 시간에 도달하면 깨닫게 되는 진리인지 모른다.

한편 손 시인은 목포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문학예술' 시 부문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한국문화예술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과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를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설의 '우드스톡 페스티벌' 한국 온다

7월 28~30일 경기도 포천...30여 팀 공연

미국의 전설적인 록 페스티벌이자 음악 축제의 시조라고 불리는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올해를 한국에서 개최된다.

공연기획사 SGC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 포천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표어로 페스티벌 '우드스톡 뮤직 앤 아트페어 2023'을 연다고 밝혔다.

1969년 미국 뉴욕주 베델에서 처음 열렸던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지미 헨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등 당대의 스타들이 참가해 1960년대 록 문화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그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페스티벌에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자유와 반전주의, 다양성의 추구를 부르짖었다.

이후 1994년과 1999년과 2009년에 각각 개최 25주년과 30주년, 40주년을 기념

해 후속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1960년대는 비틀스, 밥 딜런, 어리사 프랭클린이 활동한 대중음악의 전성기"라며 "아티스트 외에 그 당시를 상징하는 지적재산(IP)을 뽑으려면 우드스톡이 아닐까 싶다"며 페스티벌의 의의를 설명했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정식 판권 계약을 맺고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임 평론가는 "우드스톡은 페스티벌을 넘어 공연의 상징"이라며 "한국에서 우드스톡이 열리는 건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SG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구체적인 페스티벌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30여 개 팀과 공연 출연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